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17 주차 (창 11:27~12:8)

(2016년 4월 10일 - 2016년 4월 16일)

(제4권 17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URE** 제 4 권-제 1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4 월 1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래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더라 (주일)

오늘의 본문 (창11:27-32)

- (27절) 다음은 데라의 툴레도트입니다.(וְאֵלֶּה תּוֹלְדֹת תְּרָח.)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תְּרָח הוֹלִיד אֶת-אַבְרָם אֶת-נָחוֹר וְאֶת-הָרָן.)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וְהָרָן הוֹלִיד אֶת-לוֹט.)
- (28절) 하란은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의 고향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וַיָּמָת הָרָן עַל-פְּנֵי תְּרָח אָבִיו בְּאֶרֶץ מוֹלְדָתוֹ בְּאוּר כְּשָׂדִים)
-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그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받아들였습니다.(וַיִּקַּח אַבְרָם וְנָחוֹר לָהֶם נָשִׁים.)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נָשָׁם אֲשֶׁת-אַבְרָם שָׂרַי וְנָשָׁם אֲשֶׁת-נָחוֹר מִלְכָּה)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습니다.
(בֵּית-הָרָן אֲבִי-מִלְכָּה וְאָבִי יִסְכָּה)
- (30절)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며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וַתְּהִי שָׂרַי עֲקָרָה אֵין לָהּ וָלֶד.)
-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וַיִּקַּח תְּרָח אֶת-אַבְרָם בְּנוֹ וְאֶת-לוֹט בֶּן-הָרָן בְּנוֹ-בְנוֹ וְאֵת שָׂרַי כְּלִתּוֹ אֲשֶׁת אַבְרָם בְּנוֹ)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וַיֵּצְאוּ אֹתָם מְאוּר כְּשָׂדִים לְלֶכֶת אֶרֶץ כְּנָעַן)
하란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וַיָּבֹאוּ עַד-הָרָן וַיָּשְׁבוּ שָׁם)
- (32절) 데라가 20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וַיְהִי יְמֵי-תְּרָח קָמֵשׁ שָׁנַיִם וּמְאָתַיִם שָׁנָה וַיָּמָת תְּרָח בְּהָרָן)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셈의 족보를 나열한 성경은 이어서 바로 데라의 족보로 넘어간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로 시작한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툴레도트(תּוֹלְדֹת))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아들의 이삭이나 그의 손자 야곱도 툴레도트가 있다. 심지어 자인 이스마엘이나 장자에서 밀려난 에서의 툴레도트도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의 툴레도트만 없다. 툴레도트만 보자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징검다리 불과할 뿐이다. 어쨌든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에서 볼때 아브라함의 툴레도트가 빠져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못해 특별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툴레도트의 시조로 기록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 서운해 할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이름은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의 툴레도트에 그의 이름 네 글자를 당당하게 새겼다. 물론 예수님의 툴레도트인 하지만 말이다. 기왕에 예수님의 툴레도트에 관해 얘기를 꺼냈으니 하나만 더 얘기하자. 마태복음 1장의 툴레도트는 예수님의 툴레도트다. 성경의 모든 툴레도트는 시조를 시작으로 그 후손들을 차례로 기록하는 것이

관례다. 물론 가장 첫 머리에 시조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런데 신약의 톨레도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톨레도트라고 명명되었다. 비록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는 하나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톨레도트의 시작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톨레도트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래의 이야기다. 본문의 문학적 구조만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하란이 데라 앞에서 죽다 (28절)
- B: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형성된 데라의 자손들 (29절)
- C: 사래는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더라 (30절)**
- B: 데라가 자손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다 (31절)
- A: 데라가 하란에서 죽다 (32절)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전체 이야기에서 정확히 중간에 오는 구절이 30절이다. 놀랍게도 이 구절은 사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잘 알고 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며 그의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셨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다.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수많은 아들을 낳을 수도 있었다. 야곱만 하더라도 네 명의 아내에게서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외삼촌인 라반을 7년이나 섬겼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듯 라반의 술수로 그 언니 레아와 혼인하게 된다.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라반의 제안을 받아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때문에 다시 7년간 종노릇 했다.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야곱은 두 아내를 얻은 데다가 그들이 서로를 질투하는 바람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까지 덤으로 첩으로 맞게 되었다. 그 결과 야곱은 그들에게서 많은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이 네 명의 여자를 통해 12 명의 아이를 낳기까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만 보셨다.

그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에게만은 특별히 개입하셔서 다른 어떤 여자도 안 되고 반드시 사래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사래의 몸에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아내 사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임을 분명히 알게 된 그는 결국 아내에게서 자식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사래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래가 불임 여성임을 미리 알았을 리 만무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래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셨을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아내로 둔 아브라함을 선택 하셨을까? 게다가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반드시 사래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시겠다고 거듭 강조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뭉치를 부리는 게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다. 아브라함을 움짱달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부러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생각은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죄없는 욥을 하나님이 먼저 사단을 준동하여 한번 건드려 보라고 내 준 셈이다. 대적자 사단은 처절할 정도로 욥을 철저히 짓밟았다. 욥은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 모두를 한낱 한시에 잃게 되었다. 욥의 아내조차 그에게 “당신이 그런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을 정도다.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를 꼭 집어서 고난의 화살을 퍼부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임신이 불가능한 아내 사례를 통해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결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욥에게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가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다. 이 두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전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은혜는 우리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다. 하지만 인간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늘 결핍을 통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 인간이 메울 수 없는 결핍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 그것이 은혜다. 내가 현재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일은 지식을 통해서만 절대 불가능하다. 은혜는 오직 결핍이라는 체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원래부터 불임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생물학적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어쩌면 사례의 불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까?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 때문에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데라의 삶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11:27-32)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성경은 데라의 가족사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의 기본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데라의 이야기를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라의 세 아들의 이름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다. 하란은 그의 아버지보다 앞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데라는 아들의 이름과 동명인 하란 땅에서 죽는다. 본문 28절과 32절은 데라와 하란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문학적 장치를 찾아내는 것도 흥미롭다.

하란은 롯을 낳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출지에 고아가 된 롯을 아마도 삼촌 아브라함이 거두어 함께 살아온 듯하다. 후에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시를 멸망시킬 때 은혜를 입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의 딸들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창세기에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그의 두 딸을 통해 낳은 아이들은 후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자가 된다.

나홀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할아버지다.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는 바람에 이삭은 자신의 조카뻘 되는 리브가와 혼인하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나홀의 손자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장인이 된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모두가 나홀의 후손과 혼인한 셈이다. 그뿐 아니다.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이다. 밀가가 하란의 딸이었으니 롯의 누이 동생(또는 누이)인 셈이다. 이렇듯 데라의 후손은 서로 혼인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래,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자 손자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성경은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창세기 12:1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내 사래,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왜 데라는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했을까?

물론 전체적인 성경 기록에 의하면 데라가 주축이 되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함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맞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지만 데라를 선택해 그리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아브라함이 주축이 되어 행해진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데라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었을 거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데라가 이 모든 일을 주동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사실 데라와 나머지 가족들도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남겠다고 버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의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상류로부터 내려온 토사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항구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갔다. 그 결과 도시는 점점 쇠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이 빈번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바로 그 즈음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 데라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는 낯선 가나안보다는 그 당시 번창하고 있던 하란에 머물고 싶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도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번영과 자신의 이익을 좇아갔다. 하란(חָרָן)은 우리말로 높은 산, 언덕, 길이라는 뜻이다. 하란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안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고지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리라 짐작된다. 거기에다 공교롭게도 이 하란은 데라의 죽은 아들이자 롯의 아버지인 하란과 그 이름이 같다. 아마도 데라에게는 하란이 살기 좋은 곳이면서도 동시에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지명이라 좁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싶다.

데라 뿐 아니라 나훔의 후손들도 하란과 인접한 밧단아람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야곱이 편법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일 때문에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말했다 (창27:43). 이삭의 증언도 이를 반증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창28:1~2). 이와 같이 데라의 모든 가문이 하란 땅으로 이주했고,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하나님은 데라의 가문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어 약속의 자녀로 만드셨다. 첫 번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래였다. 다음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고, 그다음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다. 게다가 야곱은 삼촌 집에서 사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들들(베냐민을 제외한 11명)까지 낳아서 나왔다. 여하튼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했고, 그가 믿던 신을 섬기며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데라는 아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보다는 자신이 살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하란이 더 좋았던 모양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향했다. 당시 사회가 직계 조상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 사회라는 점, 아브라함이 데라의 맏아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은 불효자로 낙인찍혔을 사람이다. 하지만 도덕은 결코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비난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것이다 (막10:29 참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2000년 전에 그는 이미 이 말씀 앞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우리는 어떤가? 세상의 도덕적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당신은 무엇을 따르는가? 세상의 도리를 우선시 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는 않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2:1~4)

- (1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וַיֹּאמֶר יְהוָה אֶל-אַבְרָם)
가라!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그 땅으로
(לֵךְ-לְךָ מֵאֶרֶץ כְּנָעַן וּמִמּוֹלַדְתְּךָ וּמִבֵּית אָבִיךָ אֶל-הָאָרֶץ אֲשֶׁר אֹרְרָא)
- (2 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וְאֶעֱשֶׂה לְךָ גּוֹי גָּדוֹ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וְאַבְרָכְךָ)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וְאַגְדָּלְךָ שְׁמִי)
(너는) 복이 되거라。(וְהָיָה בְּרָכָה)
- (3 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וְאַבְרָכָה מְבָרְכֶיךָ)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וּמְקַלְלֶיךָ אָאֵ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에 의해 축복받게 될 것이다。(וּנְבָרְכוּ בְךָ כָּל מִשְׁפָּחַת הָאָדָמָה)
- (4 절) 아브람이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갔습니다。(וַיֵּלֶךְ אַבְרָם כְּאֲשֶׁר דִּבֶּר אֱלֹהֵי יְהוָה)
룻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וַיֵּלֶךְ אִתּוֹ לוֹט)
아브람이 하란에서 나올 때 칠십오세였습니다。(בְּ-חֶמֶשׁ-עָשָׂר שָׁנִים וְשִׁבְעִים שָׁנָה בְּצֵאתוֹ מִחָרָ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데라의 아들이자 사래의 남편으로 메소포타미아의 한 상업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달의 신을 섬기며 살던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그 땅으로”(1 절).

이 명령 한 마디가 이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나아가 인류 역사를 바꾸었다. 그동안 창조와 타락과 심판, 그리고 인류의 재시작을 다루던 성경은 갑자기 시선을 돌려 보잘것없는 한 남자와 그의 소박한 가정으로 카메라를 zoom in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던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명령하신다 ‘가라!’고.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 이유는 묻지 말고 가야 할 땅을 보여 줄테니 무조건 떠나란다. 떠나되 그가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오롯이 떠나란다.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어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는 데라가 해왔던 것처럼 달의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살던 대로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섬기는 신들을 믿고 섬겨왔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전혀 다른 어떤 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명령하신다. 모든 것을 떠나라고!

누가 이 명령에 순순히 따를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을 따라야겠다!’ 했을 리 만무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인간들에게 다가올 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함께 오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이끌었고 그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명령을 수행했다. 그 알 수 없는 강력한 힘, 75년간 이어져 온 그의 일상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인간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개혁주의 노선 중의 하나인 켈빈주의는 아르메니안 주의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다섯 가지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라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입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를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어도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 어떻게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한다. 왜 그럴까?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 음성이 들리면 그를 따라간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양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그대로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하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75세이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 데라의 나이 145세에 그의 아들과 헤어졌다. 그는 205살에 죽었다. 데라는 죽는 날까지 60년 동안만 아들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았다. 마음만 먹으면 아들과 합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은 단호하다 못해 매정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75년이나 몸담고 살던 곳을 하루 아침에 떠나고, 어떻게 모든 친척, 심지어 부모까지 버려두고 냉정하게 떠날 수 있던 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타협의 여지도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매정하고 단호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다. 그의 나이 75세였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그의 용기, 결단력, 그의 남다른 믿음을 칭찬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이 그의 고단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삶과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냈을 것이다. 그 끈은 고향의 친구들, 함께 동고동락한 모든 사람들, 그가 섬기던 신들, 부모 형제들이었다. 그는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걸었다. 가나안으로 향한 그는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특별히 매정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게 그렇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 그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고단한 삶을 기꺼이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2:1~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언약을 하신다. 인간들의 약속은 대개가 쌍방 간의 합의다. 서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언약은 일방적이다.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일방적인 약속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큰 민족으로 만들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언약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불임 여성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사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래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무리 생각해 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언약이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는 순간 철석같이 믿었을까?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언약이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나 이내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는 기지를 발휘해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여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 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는 꼼짝없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망신살인가? 이런 일이 한번만이 아니다. 그가 네게브 땅 그랄에 잠시 거주할 때도 똑 같은 이유로 똑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도와 주셨다. 이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을 냈다. 그의 일생에 명예롭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다.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복의 근원이란 바로 그런 뜻이다. 이런 상상도 해 본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조금은 우쭐해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는가? 복의 근원이 되기는 커녕 남들이 받은 정도의 복이라도 받기는 한 걸까?

하나님은 정녕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아브라함처럼 자식 복이 없었던 사람은 찾아 보기 힘들다.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달랑 두 명의 아들을 주셨다. 그마저도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사래의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인데다가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 남은 것은 달랑 하나, 그가 100세 때 나온 이삭 한 명뿐이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 자식 복은 아예 포기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사래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의 무게는 깃털만큼이나 가벼웠다. 자기나 아내 사래나 이미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이런 말씀을 또 하시나 하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

에 살기를 원한다고 자조섞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으니 말이다(창 17:17-18 참조). 자식을 주려면 당대에 많이 주셔야 한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성취될 복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그가 사는 동안에는 공허한 헛 약속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전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을까? 고향을 떠난 후 아브람의 삶은 나그네의 삶 그 자체였다. 그는 어디에서건 터를 잡고 정착하지 못했다. 기근이 들면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리저리 유목 생활을 하다 이삭을 나올 즈음에는 그랄 땅에 더부살이하고 있었다. 이름이 창대해지려면 용사로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든지, 수많은 백성을 거느린 왕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그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한 조각 땅도 갖지 못하고 살아간 그에게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란 주어지지 않았다. 이름이 내려면 당대에 나야 한다. 죽고 난 후에 이름이 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복도 그렇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라면 이 세상에 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가 이집트의 왕 바로 만큼의 부나 권력을 가진 적이 있는가? 오히려 그가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는가? 그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풍요와 찬란한 문명을 누린 적이 있는가? 심지어 네게브의 작은 도시 그랄의 왕 아비멜렉만도 못했다. 도대체 그가 세상에서 누린 복이 있기는 했을까? 복도 마찬가지다. 주려면 당대에 주어야 한다. 죽고 난 뒤에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가 죽은 뒤 2000년 뒤에 그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은 공수포에 불과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속은 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복일까? 내가 사는 당대에 내 눈 앞에 펼쳐지는 번영이나 만사형통을 복으로 알고,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브라함처럼 당대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니 가끔은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유효하고도 절대적인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랬듯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조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조속히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들볶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진정한 복일까요?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착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12:5)

- (5절) 아브람이 취하였습니다.(וַיִּקַּח אַבְרָם)
그의 아내 사래를 (וְאֵת־שָׂרַי אִשְׁתּוֹ)
그리고 그의 형제의 아들(조카) 롯을 (וְגֵרְחֹם בֶּן־חָמֹר)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재산들을 (וְאֵת־כָּל־כֶּסֶף אֲשֶׁר קָבַץ)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만든 모든 사람들을 (וְאֵת־הַנֶּפֶשׁ אֲשֶׁר־עָשָׂו בְּחָרָן)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었습니다.(וַיֵּצְאוּ לְלֶכֶת אֶרֶץ כְּנָעַן)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וַיָּבֹאוּ אֶרֶץ כְּנָעַן)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은 하란을 떠난다. 그의 나이 75세다. 5절은 그와 함께 가나안으로 간 모든 사람들과 가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아내 사래, 롯, 가축들,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만든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흔히 중요도를 나타낸다. 중요한 사람 또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기록한다. 당연히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첫 번째다. 그다음이 롯이다. 특이한 것은 그다음이 종들이 아니고 가축들이다. 맨 마지막에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속한 사람들(종)이 나온다. 중요도를 따라 기록했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가축들보다 종들을 뒤에 기록한 점이 흥미롭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름 둘이 있다. 사래와 롯이다. 사래는 아브람의 아내이고 롯은 아브람의 조카다. 아브람에게 있어 아내 사래 외에 사실 롯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다. 우리는 롯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관해 알게 된다. 참고로 13장과 14장이 롯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18장 중반부 이후와 19장이 온통 롯에 관한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왜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롯의 아버지 하란이 젊은 나이에 죽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맡겨졌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롯을 친자식처럼 아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친척인 롯은 늘 데리고 다녔다.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셈이다. 그만큼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집트에 내려 갈 때에도 데려갔으며, 그 덕분에 롯도 가산을 불릴 수 있었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후에는 서로 많아진 가축들 때문에 결국 헤어진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준다. 롯은 여호와와의 동산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시날왕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 왔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소돔 땅으로 갔던 롯도 포로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람은 롯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한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사병 318명을 총동원해서 가나안 땅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

롯은 물론 잡혀간 사람들과 재물까지 도로 찾아왔다. 왜 아브람은 이렇게 자신과는 무관한 전쟁에 명운을 걸고 온 힘을 다해 뛰어 들었을까? 바로 조카 롯 때문이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미리 알려 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렸다. 아브라함의 간청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다.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때문에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 10명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는 정말 의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조카 롯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유도 사실은 롯 때문이다. 이 사건 후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롯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도록 아예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롯에게 연연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상속 대상 일순위였다. 여차하면 그를 상속자로 지정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리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롯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당시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알려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미리 생각을 해 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가나안까지 데려온 조카인테 결국은 그 때문에 롯의 운명은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넘어져 코가 깨지고 나서야 돌부리를 발견하고, 된서리를 맞고 나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과는 요원해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은 현실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에 집착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임을 깨달으셨나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나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람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12:6~7)

(6절)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의 그 장소, 모레 (Moreh) 상수리 나무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וַיַּעֲבֹר אַבְרָם בְּאֶרֶץ עַד מְקוֹם שָׁכָם עַד אֵלֶּיּוֹן מוֹרֵה)

당시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וַיְהִי כִּי אָז בְּאֶרֶץ אֵלֶּיּוֹן מוֹרֵ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וַיֵּרָא יְהוָה אֶל-אַבְרָם)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לְיִזְרְעֶל אֱמֹן אֶת-אֶרֶץ מוֹרֵה)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וַיִּבֶן שָׁכָם לַיהוָה הַאֱלֹהִ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이 거느린 일련의 무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 땅에는 이미 함의 후예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학자들은 아브람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올 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동쪽을 거쳐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아브람이 이동하는 사이에 가나안 거주민들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세겜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땅으로 아브람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다.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7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 중심부에 들어왔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 언약하셨다. 하지만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400년 넘는 이집트의 노예의 삶과 사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후에나 가능했다. 약속이 주어진 시점부터 따진다면 5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여간 고통이 아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다.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얻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종살이를 벗어나 처음 찾은 곳도 세겜이다. 이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왕 하몰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이 있어났는데 바로 그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었다. 그 뒤에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노예상에 팔아 넘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곳도 바로 세겜 땅이다. 또 출애굽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유골을 묻은 장소도 세겜 땅이다(수24:32참조). 세겜은 그 유명한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다. 모세는 가나안 진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다.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 명령을 수행한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한 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하는 율법은 메아리가 되어 세겜 땅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세겜에 도착한 아브람은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이 쌓은 이 작은 제단은 훗날 그의 후손들에 의해 재현된다.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 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 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해 드렸으며”(수8:30~31).

성경의 기록은 참으로 놀랍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들어 온 곳이 세겜이다. 그는 그곳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고로 들어가 아이성을 거쳐 곧바로 세겜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세겜에 도착 해서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일이다. 그들은 그리심 산이 아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다. 왜 그리심 산이 아니라 에발산 에 제단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세겜에 도착한 아브람도 에발산 쪽에 제단을 쌓지 않았나 싶다. 에발산 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골고다와 같은 곳이다. 희생 제물이 저주를 받는 곳 말이다.

축복은 희생 제물이 대신 받은 저주를 통해 흘러나오는 부산물이다. 화목 제물이 없이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제단에 드러졌다. 저주가 선포 되었고 그 저주를 오롯이 예수님이 받아내신 것이다. 그 제물이 흘린 피가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흘러 들어갔다. 아브람이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은 일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곳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 들이 제단을 쌓았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후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골고다에서 예수님 이 이 제단에 오르셨다. 약속의 땅은 희생 제물에 떨어진 저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 가는 곳이다. 당신은 천국 백성인가? 그렇다면 마냥 축복에 취해 즐거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에발산의 저주를 온 몸으로 받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겸허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인내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에도 당신이 인내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당신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집과 멸망의 무덤 사이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12:8)

(8절) 그가 그곳으로부터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וַיֵּצֵא מֶשֶׁךְ הַהָרָה מִקְדָּם לְבֵית-אֵל)
그가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벧엘이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וַיִּטְּ אֶת-אֹהֶלָהּ בְּיַת-אֵל מִיָּם וְהָעֵי מִקְדָּם)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וַיִּבֶן-שָׁם מִזְבֵּחַ לַיהוָה)
그리고 그가 여호와와 이름을 [으로] 불렀습니다.(וַיִּקְרָא בְשֵׁם יְ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세겜에 단을 쌓은 아브람은 이내 벧엘 동편 산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겜에서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왜 세겜을 떠나 벧엘 동편으로 옮겼는지도 알 수 없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당시 세겜은 목초지가 많아 양을 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도 헤브론에 살면서 세겜까지 올라가서 유목생활을 했다. 가축이 많은 아브람에게 세겜은 살아가기에 유리한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을 떠났다. 아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그랬을 지도 모른다.

아브람은 남쪽으로 내려와 벧엘의 동쪽 산에 거처를 마련했다. 공교롭게도 그 장소는 벧엘과 아이 중간에 위치했다.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 꿈을 꾸는 곳이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다. 그 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셨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벧엘이라 불렀다. 야곱이 벧엘이라 하기 전까지 그곳의 지명은 루스였다. 참고로 루스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데 아마도 그곳에 아몬드 나무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루스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의 손자 야곱에 의해 붙여진 벧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도시 아이를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치욕스런 패배를 안겨준 도시로 유명하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손 하나 까딱 않고 정복한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진격해 올라갔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훨씬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만큼 정복이 손쉬울 것이라 여겼다. 그곳을 정탐한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했다. 이삼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허술하고 약한 성이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려 사기가 충천해 있던 여호수아는 삼천 명을 보내어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다. 물론 그 전쟁은 보기 좋게 실패했다. 나중에 패배의 원인을 찾아 보니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아간을 어느 골짜기로 끌고가 돌로 쳐 죽인다. 그런 이유로 그곳을 아골 골짜기(피로움, 고통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이렇듯 여호수아가 한번에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 도시의 이름이 아이다. 아이는 '황폐한 무덤', '멸망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아브람은 벵엘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서편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 동편에는 멸망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아브람은 이런 절묘한 위치에 장막을 쳤다. 동편 아이를 보며 이 땅에서의 자신의 힘든 삶의 여정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다가도 서편 벵엘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에스라는 벵엘 사람과 아이 사람을 각각 나누어 기록하지 않고 ‘벵엘과 아이의 사람들’이라고 하여 이들을 한 묶음으로 기록하고 있다(스2:28, 느7:32참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과 멸망의 무덤에 사는 사람들을 한 데 묶어 기록한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그런 게 아닌가 싶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도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을 힘들어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모두가 이 세상의 문제 아닌가?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삶이 불확실해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세상에서의 실패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도 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위 놀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있다. 뒤돌아서면 보이는 벵엘이다.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힘이 생기지 않을까? 벵엘을 향해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수8:1).

아브람은 벵엘과 아이 사이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고단한 인생에서 그가 부를 이름은 여호와 뿐이었다. 얼마를 그곳에서 살았을까? 그는 다시 이삿짐을 꾸려 남쪽으로 향했다. 아브람의 정처없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 계속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향하는가?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디에 정착하기를 원합니까? 멸망의 무덤인 이 세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인가요? 삶의 고난 속에서도 당신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 때문에 당신은 매일 매일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